

# 出入記者가 본

## 看護協會

### 어제 · 오늘 · 내일



金 · 淸 · 滿  
(후생일보 취재부차장)

아카시아꽃 향기가 훈풍을 타고 대지를 품이하던 1967년 초 여름. 서울·중구 쌍림동 88번지 7호에 자리잡은 대한간호협회 사무국 건물은 마치 어느중류 가정집 같은 2층의 아담한 가옥이었습니다.

빛깔이 바랜 푸른색 나무대문 한쪽 가운데에 달린 쪽문을 밀고 허리를 굽혀 들어서면 정면에 간호협회 서울시지부 관판이 눈에 뜨였고, 바른편 건물벽에 붙여 만든 쇠층계를 소티내어 올라가 원현의 미닫이식 유리문을 드르르 밀고 들어서면 대여섯평 될까한 조그만 사무실.

이 사무실이 全國看護員들을 총괄하는 大韓看護協會 사무국이었습니다.

당시 사무국 직원들로는 윤수복 상무이사(후에 총무로 바뀜)를 비롯하여 민인자先生(경리담당), 이귀숙·선생(사무전담·在美) 원용기선생(출판담당·在美) 김미정양(출판담당) 조인자선생(현 延世醫大) 등으로 기억됩니다.

역시 올챙이 기자로서 상사로부터 막연한 설명만 들은채 간호협회 사무국 문을 들어서면서 “뭐 이런데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수복선생에게서 이 건물을 때입하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앞으로의 건축계획, 건축기금모금방법등을 들은 필자는 곧 『꽤 저력을 지닌 단체구나』 하고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때에는 看護協會라고 하면 『간호원들이 모인단체도 있구나』 내지는 『간호원들이 모인 단체구나』하는 정도밖에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간호협회가 지닌 저력은 그로부터 2년후인 69년 가을에 곧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69년 5월 釜山市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인 金鈴子 간호원이 SM주사로 인한 副作用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을 때 이해 가을과 70년도 初에 생긴 全國 看護員들의 施注拒否 行使였습니다.

이때 간호협회 본부의 결의에 의한 간호원들의 施注拒否는 일사불란한 것이었습니다.

수천명의 간호원들이, 그것도 전국에서 동시에 보여준 단결력은 의로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에게도 간호협회의 존재를 부각 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간호협회의 저력을 과시한 것은 71년 가을에 있던 간호협회 회관의 준공입니다.

이때 간호협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다른 의로계 단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간호협회의 존재를 크게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협회 회관이 완공되자 다른 의로계 단체들은

늘라움을 금치못함과 동시에 간호협회의 존재를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의료계 단체로서 이렇듯 큰 그리고 독자적인 회관을 갖춘 것은 간호협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이 간호협회 회관은 외부로부터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별로 녀너지 못한 간호원들의 알은 호주머니에서 한푼씩 두푼씩 털어 모은 돈으로 지어졌다는데서 더욱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더욱 시간이 지난 오늘 간호협회는 회관이 커진 만큼이나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간호협회는 여러가지 시련을 거뭇 하면서 지금의 위치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간호협회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어느단체에 비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임으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간호협회가 안정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각이 간호협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8·15해방직후 정부조직에 틀어쥔 출발한 간호행정기구가課로 격하되기 시작하여 그다음에는 달광관실로, 또 작년에는 係로 격하된 것은 곧 지금 간호협회가 당면한 시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보조원들의 간담없는 침식, 그리고 각 관제기관에서의 「레콜리」간

호원들에 대한 경원감과 이에 따른 간호원들의 취업난 등도 간호협회가 당면한 그것중의 하나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 이제 의료의 개념이 施惠 내지는 惠澤이란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받아들일 권리로 그 모양이 바뀌어가는 이때 지금까지 한껏 성장한 간호협회가 부닥쳐야 할 과제들은 이제까지의 것들 보다 더욱 늘어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작년 가을, 정부는 오는 77년부터 시작되는 경제개발 제4차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의 경제치점에서 사회개발면으로 치중할 것을 분명히 천명 했고, 특히 보건 분야의 개발에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만 이 보건분야의 개발에 있어 의사나 간호원등 의료인들에게 그 주역을 맡기지 않고 경제학자 내지는 사회학자들에게 이를 추진토록 한 것은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 일해야 할 사람들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의료인이 소외된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간호원들은 그동안 시련을 겪어오면서 보여준 단결력과 저력을 더욱 간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면서 간호직은 전문직의 한 분야로서 강조되고 있고 이에따라 간호원은 한 전문직업인임을 뚜렷이 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호원은 한 전문직업

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호라는 것이 의학과 더불어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특수분야인 만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自覺이 필요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政府는 보다 저렴하고 良質의 의료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그 방안으로 「메덱스」(Medex, 아마 Medical Extender의 복합어인듯 합니다)라는 새로운 제도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교육문제도 논의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교육관계자들은 특히 이 문제에 대비 깊은 연구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간호학 전반에 걸친 퇴보는 있을 수 없으나 쏠쏠민을 위한 건설적인 양보와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호협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한두가지 나열했듯이 간호협회가 곧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간호협회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모든 시련을 딛고 지금을 이룩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여유있게, 그리고 무난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